달라진 KIA, 3위 자리 넘본다

3위 두산 4연패 주춤한 사이 반경기차로 따라붙어
마운드는 안정적…김선빈·류지혁 이탈 내야 불안

중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두권을 유지하던 두산 베어스의 4연패가 촉발한 변화다.

두산은 지난 1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시즌 5차전에서 3-6으로 졌다. 어느덧 4연패. 18연패 중이던 한화 이글스에 충격의 2연패를 당하더니 삼성에도 연이틀 졌다.

연패 시작 전 2위였던 두산의 순위는 3위(21승16패)로 내려앉았다. 2위 LG 트윈스(24승13패)와 격차가 3경기로 꽤 크게 벌어지면서 3위 자리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먼저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가 공동 4위(21승17패)로 두산의 뒤를 불과 반 경기 차로 바짝 쫓고 있다. 18일 경기 결과에 따라 두산은 순식간에 5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6위 롯데 자이언츠(19승18패), 7위 삼성 라이온즈(19승19패)도 두산과 가까이 있다. 롯데는 2경기 차, 삼성은 2.5경기 차다. 3위부터 7위까지 5개 팀이 촘촘히 늘어서 있는 형국이다.

3위와 7위의 분위기가 정반대다. 4연패로 시즌 최대 위기를 맞은 두산. 반대로 삼성은 두산을 연파하며 3연승, 2016년 이후 4년만에 두산 상대 위닝시리즈와 30경기 이상 기준 5할 승률이라는 두 가지 의미있는 기록을 남겼다.

키움과 KIA도 꾸준히 승수를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축 선수의 부상 이탈이라는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키움은 4번타자 박병호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안방마님 박동원도 며칠 휴식을 취할 예정. KIA는 김선빈과 류지혁이 한꺼번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동반 이탈했다.

롯데는 최근 10경기에서 7승3패 상승세를 타고 있다. 17일 키움전에서 3-0으로 앞서다 3-4 끝내기 패배를 당한 것이 아쉽다. KT 위즈(8위), 한화 이글스(10위)를 상대로 파죽의 6연승을 질주하며 승률을 끌어올린만큼 중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남기는 것이 과제다.

두산의 전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중위권 경쟁은 더욱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두산은 이용찬의 시즌아웃을 비롯해 오재일, 허경민 등 주전들이 대거 빠져 있다. 4번타자 김재환의 부진까지 겹쳤다. 두산을 상대해야 할 팀들에게는 지금이 좋은 기회다.

유현주 부드러운 스윙

프로골퍼 유현주가 18일 오전 인천 베어즈베스트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34회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1라운드 10번홀에서 티샷을 치고 있다.

英 더선, 손흥민 'EPL 최고의 왼쪽 윙어' 탑5

올시즌 통틀어 16골 9도움
"혼란한 토트넘에서 빛났다"

영국 현지 언론이 손흥민(토트넘)을 EPL 내 최고의 왼쪽 측면 공격수 5명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영국의 더선은 17일(현지시간) 손흥민을 'EPL 최고의 왼쪽 윙어 5명'에 포함시켰다.

매체는 손흥민에 대해 "토트넘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시즌 도중 팀을 떠나고, 해리 케인이 장기 부상을 당하는 등 혼란스러웠다.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서도 빛났다"고 평가했다.

올 시즌 손흥민은 모든 대회를 통틀어 16골 9도움을 기록 중이다. EPL에서만 9골 7도움을 올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더 선은 "조제 모리뉴 감독이 '손날두'라 부르는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번리를 상대로 올 시즌 최고의 골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손흥민을 소개했다.

더불어 이 매체는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에서 49번의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켰다. 이는 사디오 마네(리버풀)와 동률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마네보다 300분을 적게 뛰었다"면서 손흥민의 드리블 능력을 주목했다.

손흥민과 함께 마네, 라힘 스털링, 르로이 자네(이상 맨체스터 시티), 잭 그릴리쉬(아스턴 빌라)가 최고의 왼쪽 윙어 5명에 뽑혔다.

더 선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안소니 마샬, 마커스 래쉬포드, 아스널의 피에르 오바메양도 왼쪽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주로 공격수로 출전,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골프협회, "박세리 ,한국 女골프에 큰 영향"

밥 존스 상 주인공 집중 조명

미국골프협회(USGA)가 2020년 '밥 존스 상'의 주인공 박세리(43)를 집중 조명하며 한국 여자골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USGA는 18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박세리는 2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며 한국 여자골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박세리는 만 20세에 LPGA투어에 데뷔해 메이저대회 5승을 챙겼다. 1998년 US여자오픈에서 당시 최연소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USGA는 매해 골프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고 골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밥 존스 상'을 수여한다. 지난 1월 중순 USGA는 박세리를 올해 '밥 존스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5승을 기록하며 한국 여자골프를 세계에 알린 박세리는 2016년 현역에서 은퇴했다. 이에 앞서 2007년에는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됐다.

USGA는 "박세리는 국가적 기대를 안고도 친근함과 겸손함을 갖추고 있었다. 박세리는 모든 골프선수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밝혔다.

마이클 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커미셔너는 "밥 존스가 살아있었다면 박세리에게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을 것"이라며 "박세리는 밥 존스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재미교포 미셸 위는 "한국계로서 박세리가 우승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박세리가 모두를 위해 길을 닦았다"고 박세리의 수상을 축하했다.

전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는 "박세리는 골프계에 큰 영향을 끼쳤고 선수들이 투어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한편 USGA는 당초 6월초 예정됐던 US여자오픈 기간 중 밥존스상을 시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되면서 시상 일정도 미뤄졌다. USGA는 추후 시상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챔스리그 8월 재개…8강부터 단판 승부

기존 홈앤드어웨이방식서 축소

유럽 각 리그들이 속속 재개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도 오는 8월 다시 시작한다.

UEFA는 17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월부터 2019-20 챔피언스리그가 재개한다"며"8강전부터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스타디오 다 루즈, 주제 알발라드에서 단판 경기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대회가 중단되기 전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아탈란타(이탈리아), 라이프치히(독일)가 8강 진출을 확정했다.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유벤투스(이탈리아)-리옹(프랑스), 바르셀로나(스페인)-나폴리(이탈리아), 바이에른 뮌헨(독일)-첼시(잉글랜드)전은 16강 2차전을 치르지 않았다.

이에 UEFA는 8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16강 잔여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 장소는 양팀 협의 아래 2차전 홈팀 경기장이나 포르투갈에서 열린다. UEFA는 16강 2차전 4경기가 모두 포르투갈에서 열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포르투의 에스타디우 두 드라가오, 기마랑스의 알폰소 엔리케 경기장을 또 다른 경기 장소로 지정했다.

챔피언스리그 8강이 결정 되면 8월 13일부터 단판 토너먼트가 펼쳐진다. 그동안 챔피언스리그는 16강부터 준결승전까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8강전은 8월 13~14일, 준결승은 8월 19~20일 펼쳐진다. 결승전은 에스타디오 다 루즈에서 8월 24일 열린다.

UEFA 유로파리그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8월 5~6일 16강 잔여 일정을 치른 뒤 8월 10일부터 독일의 4개 도시(쾰른, 뒤스부르크, 뒤셀도르프, 겔젠키르헨)에서 남은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결승전은 8월 21일 쾰른에서 펼쳐진다.

UEFA는 오는 7월 10일 스위스 니옹의 UEFA 본부에서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8강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KBO리그 한화-SK 이태양-노수광 맞교환

한화 이글스가 투수 이태양(30)을 SK와이번스에 내주고 외야수 노수광(30)을 받아오는 맞트레이드를 단행했다.

한화와 SK는 18일 오전 이 트레이드에 전격 합의했다.

청주고, 건국대 출신의 노수광은 2014년 한화이글스에 입단해 1군에 데뷔했다. 2015년과 2017년 트레이드를 통해 KIA 타이거즈, SK로 팀을 옮겼고 5년만에 다시 한화 유니폼을 입게 됐다.

통산 500경기에 출장해 타율 0.286(1580타수 452안타)을 기록중인 노수광은 2016시즌 12도루를 시작으로 2019시즌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태양은 순천 효천고를 졸업하고 2010년 신인 드래프트 5라운드(전체 36순위)로 한화에 지명된 우완 투수다. 통산 232경기에서 20승 35패 22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5.30을 기록 중이다.

나폴리, 유벤투스 꺾고 코파이탈리아 우승

승부차기 접전 끝 4-2 승

나폴리가 유벤투스를 꺾고 코파 이탈리아 정상에 올랐다. 승부차기로 희비가 엇갈렸는데, 유벤투스의 에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킥을 차보지도 못했다.

나폴리는 18일 오전(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열린 유벤투스와의 2019-20시즌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에서 0-0 무승부 후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했다.

이로써 나폴리는 2013-2014시즌 이후 6년 만에 클럽 통산 6번째 컵대회 정상에 올랐다. 반면 2년 만에 코파이탈리아 정상 복귀를 노렸던 유벤투스의 꿈은 무산됐다.

경기를 주도한 유벤투스나 수비를 단단히 한 뒤 역습을 도모했던 나폴리 모두 결실을 맺지 못하고 90분을 흘려 보냈다. 이후 돌입한 승부차기. 승리의 여신은 유벤투스를 외면했다.

유벤투스는 첫 키커 파울로 디발라에 이어 2번째로 나선 다닐루까지 실축하면서 자멸했다. 반면 나폴리는 나서는 키커마다 골을 넣으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유벤투스의 호날두는 5번째 키커로 준비했는데,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유럽 대륙 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이탈리아는 컵대회를 통해 축구를 다시 시작했으며 오는 21일부터는 정규리그 세리에A도 재개한다.

올 시즌 60경기 치르고 경기별 비례연봉100%

MLB 커미셔너, 선수노조에 제안

MLB 사무국이 선수노조에 새로운 제안을 던지면서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이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ESPN 등 외신은 18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선수노조에 2020시즌을 60경기로 치르고 경기별 비례 연봉을 100%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다. 포스트시즌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선수노조는 팀 별 72경기를 소화하고 경기별 비례 연봉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사무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선수노조는 "더 이상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세레나, US오픈테니스 출전…"팬들 그리워"

여자 테니스 스타 세레나 윌리엄스(미국·39)가 US오픈 출전 의사를 밝혔다.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18일(한국시간) 윌리엄스의 US오픈 출전 의사가 담긴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윌리엄스는 "빨리 뉴욕으로 가서 올해 US오픈에 출전하고 싶다"며 "USTA가 안전하게 대회를 잘 준비한 것 같다. 팬들이 그립다"고 말했다.

테니스 메이저대회 중 하나인 US오픈은 오는 8월31일부터 9월1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최가 불투명했지만 최근 무관중 경기로 대회 진행을 결정했다.

윌리엄스는 메이저대회 통산 23승을 기록 중이다. 앞으로 메이저대회에서 1승을 추가한다면 마거릿 코트(메이저 24승)와 함께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세울 수 있다.

윌리엄스는 US오픈에서만 6번 정상에 올랐다. 2017년 호주오픈 이후 메이저 우승을 추가하지 못하고있지만 US오픈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결승까지 진출하는 등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기대감을 키운다.

한편 윌리엄스와 달리 루마니아의 시모나 할렙(세계랭킹 2위)은 US오픈 출전을 꺼리는 모습이다. 할렙은 최근 외신을 통해 "현재로서는 올해 US오픈 출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계획은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S오픈 출전을 꺼리는 것은 할렙 뿐이 아니다. 남자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와 라파엘 나달(스페인) 등은 US오픈 출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